

키즈카페가 뜬다 엄마도 아이도 즐겁다



광주지역에도 '키즈카페'가 뜨고 있다. 4년 전 수도권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즈카페는 지난해 광주에 상륙, 상무지구 2곳을 비롯해 4곳이 영업 중이다. 키즈카페란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들은 카페 내에 마련된 다양한 음식과 놀이기구를 이용하며 놀 수 있고, 엄마나 아빠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커피 등 다과를 즐길 수 있어 최근 가족단위 고객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다. 대형마트 놀이방 등의 개념을 떠나 부모들을 위한 전문 레스토랑과 소규모 놀이동산을 합친 새로운 개념의 키즈카페는 부모와 아이가 각자 원하는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희농장수가 포함된 2시간 5000~6000원의 요금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상주하며 간단한 교육도 가능하다. 안전한 놀이 시설이 되도록 연령별 구별이 돼 있으며 CC-TV를 통해 부모들은 항상 아

이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 엄마를 위한 공간에서는 전문 요리사가 만든 커피·음료류와 스테이크, 스카게이트, 샐러드 등의 요리가 제공된다. 키즈카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주말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38)씨는 "한번 키즈카페를 경험한 엄마들은 지인을 데리고 또 방문하는 횟수가 점차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광주를 방문한 타지역 손님들도 적당한 공간을 찾아 키즈카페를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놀이방+레스토랑...가족단위 고객 급증

상무지구 등 4곳 영업...창업문의 줄이어

놀이방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먼 곳으로 나들이를 가지 않더라도 주거단지 인근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지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짧은 엄마' 사이에서는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무지구 660㎡(200평) 규모의 프랜차이즈 키즈카페를 개업한 박모

키즈카페가 인기를 끌자 관련 창업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박씨는 "이용객이 늘고 관심도 많아지면서 1주일에 3건 정도 창업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편이라 접근이 쉽지 않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키즈카페의 인기가 급등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키즈 커뮤니티가 만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키즈카페 전경.

들어지는가 하면,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들도 커피숍 안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카페베네는 최근 개점 준비 중인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베이비베네'(Baby bane)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담양 쌀·딸기 전국 롯데슈퍼서 판다

郡과 140억 규모 MOU...전용농장 운영도

롯데슈퍼가 담양군과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슈퍼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담양군으로부터 연간 쌀 120억원, 딸기 15억원, 딸론 5억원 등 총 140억원에 달하는 농·특산물을 직접 사들인다. 또 친환경 야채와 돼지고기, 전복, 주, 한과, 죽공예품 등 지역 특산 품목도 추가로 롯데슈퍼를 통해 판매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양군 금성면 일대에 14만평의 롯데슈퍼 전용 쌀농장을 도입하고, 지난달 모내기 작업을 마친 상태다. 예상 수확량은 10kg 들이 1만포도

평년보다 다소 이른 8월 말에 추수해 추석 이전에 햅쌀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슈퍼 측은 "유통업체와 지자체 간의 직거래는 지자체의 이름을 걸고 생산된 제품이기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 거래도 없어 상품가격은 시세보다 10~20% 가량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슈퍼는 지자체와의 MOU 체결 및 전용농장 도입을 확대해 생산자와의 직거래 비중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배춧값 한달새 64% 폭락

봄배추의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늘고 있음에도 소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배춧값이 한 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12일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따르면 이날 배추 한 포기는 1100원에 거래돼 지난달 14일 가격(3050원)보다 63.9% 떨어졌다. 양과(3kg)도 지난달 14일 4150원에서 이날 3400원으로 한 달 새 18.1% 하락했고, 백오이(3개)도 1770원

에서 1300원 26.6% 내렸다. 양파는 저장분과 조생양파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으나 소비가 부진하고 백오이는 일조량이 좋아 산지 수확이 늘었으나 역시 소비가 충분하지 않아 가격이 계속 하락세라고 농협유통 측은 설명했다. 대파는 한 단에 1770원으로 전주보다 29.2% 올랐고, 무는 한 개에 7.3% 떨어진 1650원에 팔렸다. 한우와 돼지고기 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속 유희농장은 증가

2009년 3만466개로 2004년보다 609개 늘어

지난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식품접객업소 수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몰살과 같은 유희농장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엔 금융위기가 몰아쳐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향락업종은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속설이 거듭 입증된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음식점 업체 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73만1466개였던 식품접객업소 수는 2007년 70만9342개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9년 72만3292개로 늘어났다. 2004년과 2009년을 단순비교하면 8174개(1.1%)가 줄어든 것이다. 식품접객업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업태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 판매도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2004년 61만1063개에서 2009년엔 58만7897개로 3.8%(2만3166

개)나 감소했다. 반면에 몰살처럼 유희시설을 설치하고 유희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손님들의 응주가구가 허용되는 업태인 유희농장은 2004년 2만9857개에서 2009년 3만466개로 609개(2.0%) 늘어 대조를 보였다. 유희농장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술과 함께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나 유희종사자 고용이 불법인 '단란주점'은 2004년 1만8030개에서 2009년 1만5700개로 2330개(12.9%)나 감소, 일부 단란주점 업자들이 유희농장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점 형태로 응주가 허용되지 않는 휴게음식점은 2004년 5만3227개에서 2009년 6만6021개로 1만2794개(24%)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성년의 날 내게 어울리는 쏘은?

광주 신세계 이마트 1층 향수매장에서는 다가오는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향수를 선보여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여름에는 시원하고 달콤한 플로럴 향이 유행할 전망이다.

광주 신세계 이마트 1층 향수매장에서는 다가오는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향수를 선보여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여름에는 시원하고 달콤한 플로럴 향이 유행할 전망이다. (광주 신세계 제공)

식약청 '식품 안전의 날' 나눔 행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식품안전의 날'(5월14일)을 맞아 일주일 간을 '대국민서비스 주간'(5월 11일 ~ 17일)으로 정하고 다양한 나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눔 행사는 ▲아름다운 가게사랑의 물품기증 ▲사람의 헌혈운동 ▲장기기증서양 생명 나눔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봉사 ▲미레드림 장학금 전달 등이 진행된다. 특히 광주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봉사에서는 좋은 식품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어린이 영양교육 및 식품검사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교육 문의는 062-602-1407. /임동률기자 exian@

광주 신세계 이마트 1층 향수매장에서는 다가오는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향수를 선보여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여름에는 시원하고 달콤한 플로럴 향이 유행할 전망이다. (광주 신세계 제공)

유기농 할인점 '학사농장 수완점' 개장

유기농산물 생산·유통업체인 학사농장(대표 강영)은 13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창고형 유기농 할인점 '학사농장 수완점'을 개장한다. 수완점은 연건평 190평 규모로, 장성군 남면 학사농장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유기농식품을 공급한다. 특히 직거래 비율을 높이고, 부대비용과 유통 거품을 획기적으로 줄여 유기농식품의 가격을 대폭 낮췄다. 이 곳에서는 친환경 원료와 우리 밀로 빵을 굽는 베이커리,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30여가지 즉석반찬, 무항생제 축산물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친환경 식육, 기타 90여종 친환경 농식품을 판매한다. 또 2층 전문식당에서는 유기농 무화학 재료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원일기에서 '응답'역을 맡은 탤런트 박은배 씨가 참

석한다. 1992년 설립된 학사농장은 장성의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상추·대파·단호박 등 50여 가지의 유기농산물을 판매해 '유기농 열풍'을 선도한 농업공동체다. 수완점 062-962-6201.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들에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 062-385-8080~1

↑ 송정리 역 버스 5·18학생 교육문화회관 5·18기념 문화회관 ↑ 시청
지하철 호대역 3.4번출구
↓ 시내

유전일식 **참치**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여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특선** 을 저렴하게 만나볼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는 맛있고 다채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으뜸입니다.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점심 특선 17,000원
유전 특점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유전일식 중심사
광주교육과학연구원
← 두암지구 제2순환도로 화순 →

유전일식 예약전화 062-233-99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